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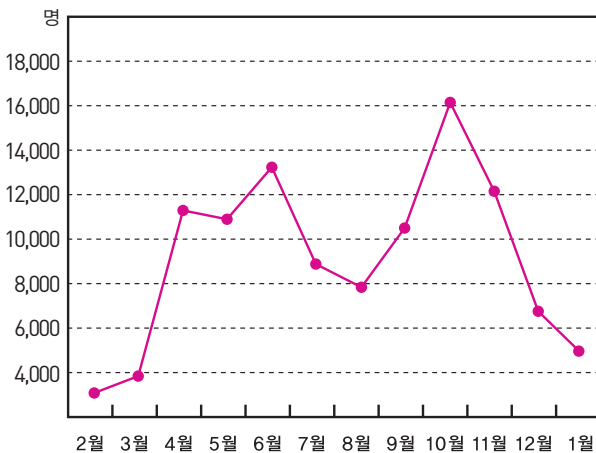
### 한국건강관리협회 무료건강검진 현장(1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한 달 동안에도 4천7백여 명에게 무료검진과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실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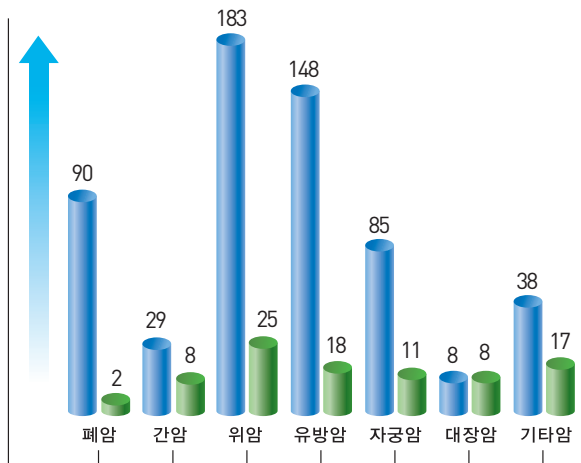
부산 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1,880여 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다. 특히 1월 19일, 제21회 북극곰 수영대회에서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설 연휴를 맞이해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월별 무료검진 현황



2008년 1월 주요 암발견 현황 1월

● 암 의심 소견자 : 581명  
● 확진자 : 89명



## 황수관 박사 초청 '신바람 건강법' 공개강좌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KBS 대구방송총국 공개홀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 대구 지부와 경북 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황수관 박사 초청 '신바람 건강법' 공개강좌가 개최되었다.

1,500여 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공개강좌는 좌석 부족으로 인해 서거나 바닥에 앉아서 강좌를 경청할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었다. 이러한 호응에 보답하고자 방송국 내 휴게실과 현관 등에 비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강좌를 생방송, 미처 공개홀에 들어가지 못한 시·도민들을 배려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강좌 당일 공개홀 로비에는 오전 10시부터 시·도민을 대상으로 금연 패널 및 금연 배너 등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또한 새해 금연을 결심한 방문자들을 위한 금연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금연 및 건강관련 홍보물 배부 등의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도 실행, 높은 관심을 얻어 냈다.

건협은 향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관련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원폭피해자 의료세미나 개최

건협은 2월 14일(목) 원폭피해자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광주 및 전남 지부에서 원폭피해자 의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한적십자사와 나가사키의료국제협력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의료세미나는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내용 및 피폭자에 대한 원호 정책, 피폭자의 암 리스크와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원폭 피해자 주치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피폭자 의료실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폭 피해자 이해 향상을 돕는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건협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원폭 피해자의 피폭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광주 및 전라, 제주 지역 원폭 피해자 1세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 설맞이 금연 캠페인 실시

건협은 설 연휴를 맞아 터미널, 기차역 등 전국 공공장소에서 귀성객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건강! 금연으로 준비하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새해 결심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금연 실천인 점에 착안해 설 연휴를 맞은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연 홍보물 전시 및 배포와 함께 즉석 폐활량 측정과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으로 금연서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한편 금연상담 등을 실시, 설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는 평가다. 건협은 향후에도 15개 시·도 지부 건강생활실천상담실과 금연클리닉을 연계해 지속적인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건협은 이보다 앞선 1월 17일(목)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